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31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31  
2021 년 01 월 31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2667707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26677079)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1 월 31 일

# 차례

1. [그냥그이름만안쓰시면됩니다] . . . . .	3
2. [자가격리할집부터주어라] . . . . .	4
3. [안에서새는바가지] . . . . .	4
4. [진보개혁의허상] . . . . .	6

## 4. [진보개혁의허상]

조바이든미합중국대통령각하께서파쇼수괴도널드트럼프를무찌르고대통령신분이되신지언젠가, 만민은바비어천가를외면서태평성대를찬양하며행복하고살고있다고하더라...라는머릿속꽃밭을우리는내던져야한다. 언론들은바이든이온갖진보정책을내세우고, 민주당이좌경화됐다면서난리에난리를치고있다. 샌더스의상원예산위원회위원장직등선에사회주의가온다면서부르주아들은호들갑을떨고있다.

그러나우리는단호히말한다. 조바이든과민주당패거리들의 '진보개혁' 은, 아무것도이뤄낼수없다. 이미지나간역사속에서그 '개혁' 이얼마나많은실패를이뤄냈는지, 그리고얼마나인민을무기력하게만들었는지증명했기때문이다.

반트럼프를외치며오바마의후광을입고민주당내리버럴의지지를통해대통령직에오른조바이든은, 결국의회민주주의를유지하고자하는한사람의자유주의자에불과하다. 그들은전세계어디서나그렇듯, 노동대중을탄압하지않는척하면서부르주아들에게힘을실어주며자연스럽게수많은불평등의제에목소리를실는다. 그리고그불평등의제에서목소리를내지만, 정작근본적인해결책은제시하지않는다.

이번게임스탑가폭등사태에서도, 그리고어떻게든바이든패거리들이해결하려고프로파간다를흘뿌리는구조적인중차별문제와환경문제또한그렇다. 그들은입법을내세운다. 기업을 '규제' 하겠다. 그들은과거에수많은정부들이그랬듯이, 또다시과거의실패를반복하고자한다.

우리는단호히말한다. 이모든것을해결할단한가지의방법은바로노동자인민의총체적인사회혁명뿐이다. 국가와의회, 사법부의통제와억압없이, 자유로이결성된노동자인민의조직을통한자본주의체제와사회에대한총체적타격뿐이다.

근본부터, 기저부터바뀌지않는다면영원히아무것도변하지않는다. 걸만변화시키는것은그어떤것도개선시킬수없다. 그렇기에우리는 '진보개혁' 이아니라, '혁명' 의길을선택해야한다민는다.

" 바이든, '진보개혁' 완수할수있을까?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56882?sid=104>

## 1. [그냥그이름만안쓰시면됩니다]

현대차노조를노조라고불러야하는지의문이드는지경에이르렀다. 노동조합을뭐라고생각하고계시는지는잘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조합주의' 라는미명하에 " 거우리싸우지말고 c'ex 합시다 c'ex ㅎㅎ " 하자는이야기를하는집단을굳이노동조합이라고불러야하는지모르겠기때문이다.

물론싸우지않고무언가를얻어낼수있다면그것은가장좋은일일것이다. 하지만그것은야합이나타협이아니라자본가계급이노동계급에대해자신들의패배를평화적으로선언하고스스로의모순을해소하기위해노동대중의한사람으로마음과행동을돌렸을때를이야기하는것이지 " 회사가있어야노조가있다 " 는류의패배주의적선언을말하는것이결코아니다.

" 회사가있어야노조가있다 " 고현대차지부는이야기했는가? 하지만이를어쩌나, 회사는결코 " 노조가있어야회사가있다 " 는이전문구에는결코동의하지않을텐데말이다. 회사역시이에공감하고함께나아가고자협의를하고있다고? 알아서무기내려놓고이빨뿜고발뿔뿔아서내앞에공손히바치겠다는데굳이거기서뻔대서화를돌올필요가정씨왕가의그어디에있겠는가.

회사를정녕법이정한 '법인', 그러니까하나의생명체라고인식하고있는가? 안타깝지만그런허상이우리를좀먹는다고단호히말하겠다. 회사는살아있는주체도아니요, 아무것도하지않고배당금잔치를하는회사가들의것도아니요, 제품을생산해내는노동자, 오직그노동자들의것이여야만한다. 당장어렵다면이번선언에서이야기한것처럼 " 사측은신차연구개발과미래투자정보를노조와공유 " 하는것부터시작을해볼수는있겠다. 과연회사가순순히알겠습니까, 하고자신들의도깨비방망이를내어줄지는미지수지만말이다. 생산수단을생산에직접종사하는노동자의손으로운영하는방침을포기하고어찌노동조합이라고불리기를바라겠는가.

그러니현대차노조는이제택일하시면되지않을까싶다. 노동조합답게생산수단을노동자의자주적인경영으로사용하는길로다시돌아올것인가, 아니면노동조합이라는이름버리고노사상생지원센터뛰이런이름으로간판을바꾸시든가.

" 현대차노조 " 대립관계청산해야 " ... 사회적조합주의제시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

## 2. [자가격리할집부터주어라]

최근서울시의노숙인관련시설에서 30 여명이코로나바이러스에집단감염되는등노숙인들사이에서의감염이확산되고있다.

코로나사태는모두에게힘든일이지만빈민과약자들에게더욱가혹하게작용하고있다. 제대로된거주지와생활조건조차갖추지못하고있는노숙인들의삶은코로나사태가시작된이래로계속악화되어왔다. 노숙인들이그나마이용할수있었던일부공공의료시설들은코로나감염전담병원으로전환되어최소한의의료서비스조차받을수없게되었고노숙인들에게식사를제공하던무료급식소조차다수가문을달아내끼식사마저위협받고있는상태다. 이런과정에서서울시는노숙인시설입소기준을최근양성판정을받은이만입소할수있도록강화하겠다고한다.

한편이렇게노숙인들이몸누일쪽방조차위험해지고줄어드는와중에도가진이들은투기를일삼으며주거로이윤을챙기고자하고있다. 부동산가격은계속해서오르고투기는과열되어만간다. 한쪽에는견딜수없는위협과빈곤이있는가하면다른한쪽에는탐욕과착취가존재한다. 이것이현체제의작금의현실이다.

우리사회가노숙인들을이대로방치할만큼집이부족한것이아니다. 한국의주택보급률은이미 100% 를넘어선상태다. 우리분명노숙인들에게열악하고위험한수용시설이아닌안전한거주지를제공할능력이있다. 자본의탐욕을넘어설수있다면어떤이도길바닥을해낼필요도, 감염에취약한후진시설에들어갈필요도없을것이다.

코로나사태를맞아노숙인들의생존권을위해자본에맞선주거와의료의공공성을위한투쟁이이루어져야만한다.

” 자가격리할집이없는데요 ... 노숙인시설도집단감염확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 3. [안에서새는바가지]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수진씨가원청의노사협의회에하청노동자의“참관”을하도록규정하는 <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률 > 개정안을발의했다. 이수진씨가말한대로“원청사업장에서근무하는하청노동자는원청회사의시설물을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아하청노동자근로조건향상과산업안전개선을위해원청노사모두의협력이필요”한것이라면, 하청노동자가원청노사협의회에“참석”해야지왜“참관”“할수”있어야하는것인지는우선제쳐두자. 왜저런법을만드는데실제로집행을하게

될하청노동자들의의사는묻지않는지는, 대의민주주의가언제나그렇다고넘어가도록하자.

제일굉장한것은, 이법을발의한이수진씨가 4 년전자기현장인세브란스병원의노조위원장이었다, 하청노동자들의노동조합설립을탄압하는데매우열심히노력하신원청노조위원장이었다는것이다. 하청업체가복수노조창구단일화약법을이용해하청노조의교섭권을박탈하기를시도하고, 입사시험을보면서민주노총이아닌한국노총가입원서를써야입사가가능하고, 원청이고용환경비용역들이노동조합조직활동가들을미행하고, 원청인세브란스병원의총무팀이하청노조를직접“관리”하던와중에, 원청노조의위원장이던이수진씨는민주노총이“세력을확장하려고”들어왔다며당시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과공공운수노조위원장에게항의전화를하였다.

이수진씨의진심이궁금하다. 하청노동자들이감히노동조합을만들고, 원청사업장에서집회를하는것은용납할수없지만, 노사협의회에“참관”하러오는것정도는다름으로용서할수없다는것인가? 아니면, 하청노동자들은노동조합같은것만들지말고, 노사협의회에나성실하게참관하면, 원청노사가공동으로노력하여노동조건을개선해주겠다는것인가?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에게그되도않는자비와아량은그만두라. 노동자들은스스로자기조건을개선할수있다. 이수진씨가아무리세브란스병원에서비정규노동자들의노동조합을탄압하려했어도, 노동조합은아직까지꼭꼭하게남아버티고있다.

안에서새는바가지는언제나밖에서도샌다. 자기사업장에서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단결권탄압에앞장서시던이수진씨가대표발의한하청노동자보호법이어떤끔찍한악법으로다가올지걱정이될뿐이다. 이수진씨가진정으로하청노동자들의노동권증진을하고싶어하시는것이라면, 법따위를개정하기전에자기잘못을반성하고, 자기현장에서의하청노동자들에게사과하고, 그노동조합이온전하게자기권리를누릴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원청노사협의회에하청노동자참여길열리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4>

” 비정규직청소노동자와외면한노동분야비례대표?”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0665>